

중세배경 영화에 나타난 기사복에 관한 연구 -11~15세기를 중심으로-

김희정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전임강사

A Study on the Costume of Knight in the Cinema with the Background of the Middle Age -Focused on the 11~15th Century-

Hee-Jung Kim

Full-time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06. 11. 27. 접수 ; 2007. 1. 18. 채택)

Abstract

Main role to expand the fashion in the middle age was played by aristocracy and knight. They contributed to the fashion of the middle age regardless of aesthetic sense.

First, in any age, there was a self-display design using splendid decoration or material in the costume of high-class people. Aristocracy, especially, knight in the middle age classified themselves from others by wearing the costume suitable for their statuses.

Second, the Crusade knight appearing all over the cinema gathered various peoples and caused acute optic angle about specialty of costume. Therefore the trend preferring foreign costumes was changed to new fashion while it was connected to desire searching for a change.

Third, although armor of knight was created because of protection in the war, in the 13th century, its character of motion and defense was emphasized and it became splendid style. More over, the costume of knight was developed to more emphasize masculine beauty with heavy upper body and light lower body so it caused sexual difference of costume in the middle age.

Fourth, As knight searched effective defensive weapon, chain mail was relegated by plate armor. The order of armor that the knight wore in 1350 was as follows. First, he wears adhesive shirts, braies, hose and wears metal protector on arm and leg. He wears padded undercoat called gambeson, hauberk, plate armor and surcoat on them.

Key Words: Knight(기사), Middle age(중세), Costume of the cinema(영화의상)

Corresponding author ; Hee-Jung Kim

Tel. +82-11-241-8117, Fax. +82-2-760-4484

E-mail : heejec04@hotmail.com

I. 서론

서양의 4세기부터 14세기까지를 일컫는 ‘中世’(middle age)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중간시대라는 뜻으로, 중세의 시작 연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리 잡고 있는데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을 시작으로 삼는 학설이 일반적이며 중세의 끝 경계는 분명히 자를 수 없지만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이전인 15세기 전기까지로 볼 수 있다.

11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약해진 비잔틴의 부흥을 다짐하고 왕위에 오른 알렉시우스(Alexius) I 세는 교황 우르바누스(Urbanus) II 세에게 투르크족에 대항할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르바누스 II 세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투르크족을 공격하여 성지를 탈환하고, 비잔틴 교회를 로마 교회에 통합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1095년 11월 프랑스의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십자군을 제창하였다.

기사들에게 있어서 8차에 걸친 십자군원정은 숭고한 지명을 받아 떠나는 모험여행이었으며, 남아도는 전투력을 휘두를 수 있는 공공연한 기회이며 전리품 또한 매력적인 것이었다.

십자군원정이 이루어진 12-14세기는 사상과 취향, 삶의 질적 변화가 심한 변화를 겪게 되어 무역확대, 경제적인 진보들에 의해 복식도 큰 변화와 기술적인 진보를 겪게 되는데 기사의 존재 자체가 종교적인 영역에서 상업적인 영역으로 퍼져 궁정예절, 기사 정신 등이 복식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또한 봉건사회의 특징상 신분에 따라 귀족이나, 기사의 복식의 형태가 엄격히 구분되었는데, 11-12세기 기사들은 귀족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였으며 자신이 모시는 주군의 행동과 복장을 모방하였고 심지어 주군이 기거하는 저택의 건축 양식조차 모방하였다.¹⁾ 기사들이 당시 패션을 리드하였으므로 시민들은 기사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자 하였다.

한편 근래 들어, 보는 이로 하여금 현실에서 맛볼 수 없는 심리적 쾌감을 만끽하게 하는 환타지적인 대중문화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대표적인 <반지의 제왕>, <헤리포터> 시리즈 등

의 영화는 주된 무대가 중세이고, 이곳에 나오는 캐릭터의 대부분이 악마를 찾아 떠나는 기사들이다. 이는 중세 기사도 문학의 현대적 재생산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에 표현된 기사복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본 연구는 11-15세기 배경의 기사소재의 영화자료를 토대로 당시 유행의 중심에 있었던 기사복을 시대적 특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사복을 일반복식과 전투복식으로 나누어 각 복식의 특징을 알아보고, 영화에 표현된 기사복을 시대별로 구분해보며 기사복식이 당시 일반복식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해보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범위는 십자군이 창설된 11세기말(1095년)을 시작으로 하고 기사가 사라지는 15세기까지로 정하였는데 11세기와 13세기는 기사를 소재로 하는 영화자료의 부재로 부득이하게 영화의상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 중심의 연구로 대체하였다.

연구방법은 Digital Multimedia Converting System을 이용하여 영상캡처 하였는데 12세기 기사복은 영화 <비지터>와 <킹덤 오브 헤븐>을 분석하였고, 14세기의 기사복은 <브레이브하트>와 <기사 윌리엄>을, 15세기 기사복은 <잔다르크>와 <헨리 5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단 <헨리 5세>는 제작연도가 오래되어 사진자료로만 참고하였다.

II. 기사의 등장과 기사단

1. 기사의 등장

계급사회인 중세에는 싸우는 자(왕, 제후, 기사), 일하는 자(농민, 장인, 상인), 기도하는 자(수도자, 성직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중 기사는 싸우는 자의 부류에 속하여 일하지 않는 부류에 속한다²⁾.

기사(騎士)는 말을 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중세의 의미로는 말을 타고 전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³⁾. 기사를 의미하는 라틴어인 밀레스

(miles)라는 용어가 10세기 말의 사료에 처음 등장하며 이외에 기사를 뜻하는 단어로는 영어 Knight, 프랑스어 chevalier, 이탈리아어 cavaliere, 스페인어 caballero, 독일어 ritter가 있다.

중세에 이르러 말과 마구의 개량, 특히 편자와 등자(鎧)의 발명 및 도입으로 군마(軍馬)의 기동력과 내구력이 비약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종래의 보병전 대신 기병전이 전투의 결정적인 형태가 되었다. 기사란 카롤링거 왕조이래 전술 변화, 즉 군대의 주력이 보병에서 기병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중장 기병 전사를 뜻한다.

기사가 부상한 것은 봉토제가 발달한 프랑스에서였으며, 기사계급은 사회적·법적 신분으로 보면 아주 차이가 나는 여러 그룹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처음에는 농노들을 기사로 썼는데 자유귀족과 구분되었지만 곧 차이가 없어져 모두 함께 기사계급을 이루었다. 법적인 지위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만 하인, 자유귀족, 백작, 공작 등을 통틀어 기사라고 불렀다.

12세기경 귀족 젊은이의 성인식은 기사서임식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기사들은 원래 귀족은 아니었지만 12세기가 되면 귀족은 기사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사라는 단어는 주군을 섬기는 전사와 성인이 된 귀족이라는 두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기사의 아이들은 열네 살 경에 신분에 어울리는 궁정에 나가 시동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이 충정, 공정, 용기, 무예, 자애, 관용, 예절, 봉사 등으로 나타내는 기사도(chivalry)이다.

중세 서유럽 봉건 제도의 꽃으로 불린 기사들 사이에 성립한 규범의식 또는 행동 양식의 이상형으로 기사서임식(騎士敍任式)의 선서에는 무용(武勇)·성실·명예·예의·경건·겸양·약자 보호 등의 덕목이 담겨 있다.

2. 기사단

십자군원정의 초기 목적과 달리 원정말기에는 독일인, 영국인, 프랑스인들 사이의 적대감이 커져 출정성과가 의문스러울 지경에 이르렀지만⁴⁾ 출정한 기사단은 만들어진 성격에 따라 다

양한 기사단의 호칭으로 불렸다.

구호 기사단(Hospitallers)은 가난한 라틴계 순례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1023년에 예루살렘에서 설립됐다. 조르덴 브리셋(Jordain Briset)이라는 기사가 세운 이 기사단은 1118년에 종교적인 기사단으로 바뀌었고 구호기사단 또는 '바스 기사단(The Order of the Bath)'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⁵⁾.

성전 기사단은 보두앵(Baudouin) 2세 때 처음 생긴 것으로 수도생활의 규율과 전투기술이 만난 것인데 최초의 창시자인 기사 파앵의 위그(Hugh of Payns)는 8명의 기사들과 알 아크사(al-Aqsa)에 거처를 마련하고 이곳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른 것에서 성전 기사단(Knight Templar) 이름이 유래하게 된다. 반드시 귀족이어야 했던 성전 기사단은 1128년 교황에게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유럽 곳곳에서 붉은 십자가 문장을 달고 흰 겹옷을 입은 무장기사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⁶⁾.

1191년 아크레(Acre)가 포위된 동안 비슷한 종류의 기사단이 루백(Lübeck)의 독일 상인들에 의해 설립됐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튜튼 기사단(Teutonic Order of Knights)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검은 십자가가 그려진 흰 망토를 입었다. 영국의 성 토마스 기사단(Order of St. Thomas)은 피터 데 로췌(Peter des Roches)에 의해 1231년에 설립됐으며 14세기 말까지 유지됐다. 단원들은 흰색과 붉은 색이 각각 절반씩 수직으로 나뉜 십자가가 뱃지로 그려진 고유한 망토를 입었다.

성 요한 기사단(Knights of S. John of Jerusalem)은 1309년에 로도스를 점령한 후 스스로 로도스 기사단(Knights of Rhodes)이라 불렀다. 그들은 종종 갑옷 위에 검은 슈르코를 입었으며 정규제복으로는 밀랍을 칠한 옷감으로 만들어지고 흰 팔각 십자가가 그려진 망토를 착용했다. 약 1280년에 군사적 임무를 맡으면서 가슴에 흰 십자가가 그려진 붉은 슈르코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상생활을 할 때는 가슴에 십자가가 그려진 검은색 플록(frock)이나 카울(cowl)을 입었다.

1383년 영국의 에드워드(Edward) 3세가 만든 가터(Garter)계급은 기사작위 중 최고로 높은 계급으로 14세기부터 각자의 작위를 상징할 수 있

는 칼라를 공들여 만들어 어깨에 걸쳤다).

기사는 갑옷과 기타 무장도구를 구입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고 지속적인 훈련으로 노동 시간이 없으므로 점점 직업화되었다. 더욱이 15세기에는 기사 등의 위상이 약해져 이윤을 쫓아 여행하는 행상으로 취급받았고 기사단의 휘장은 돈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매매품으로 전락하였다.

III. 중세 기사의 복식

중세의 기사복식을 일반복식과 방호목적으로 작용한 전투복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반복식의 종류와 특징

기사는 일반복식으로 기본적인 속옷인 셔츠와 브레를 입고, 호즈를 착용했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블리오, 꼬뜨, 우쁘랑드, 망토를 착용했다.

1) 슈미즈(chemise), 셔츠(shirt)

중세의 상의 속옷은 리넨제 슈미즈이다. 일반적으로 입혀진 것은 패턴상으로 그리 진보적인 것이 아니어서 닥트와 고어(gores)는 적게 사용되었으며 진동술기는 직선적이고 곡선적이지 않았다.

슈미즈의 길이는 특히 14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현대의복보다 짧아지고 더 이른 시대에는 매우 다양한 셔츠의 변화를 보인다. 아래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앞, 뒤길은 어깨솔기에서 만나게 되며 종종 목에 개더가 잡힌다.

두개의 사이드 벤트(side vent)는 16세기까지 보이는 특성으로 중세에도 변함없이 보인다. 앞, 뒤의 길이는 같고 종종 옆 솔기가 아닌 조금 앞쪽에 위치한 벤트로 앞길이 뒷길보다 좁은 것도 있으며 슬릿이 앞 중심에 있는 것도 있다.

소매는 커프스 없이 풍성하며 직선소매인데 때론 기모노 슬리브 같은 형태도 사용되었다. 높은 계급의 노르만 셔츠는 목과 손목둘레에 자수가 되어있는데 목 밴드는 14세기까지 나타나

지 않았다. <그림1>에서처럼 목 여밈은 보통 끈에 의해 묶여서 조여졌는데 14세기 중엽부터 단추가 사용 됐다는 것은 1475년 구스(Hugo van der Goes)의 작품 'the adoration of the shepherds'에서 볼 수 있다. 목 트임은 일반적으로 앞에 있었으나 가끔은 뒤쪽에서 여머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1> 셔츠
(A Knight's Tale, 1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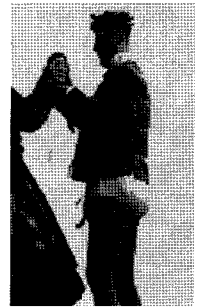
소재는 울, 린넨, 대마가 주로 사용되었고 부유한 사람을 위한 실크제도 만들어졌으며 15세기의 'cloth shirt'는 때론 슈미즈와 더블릿(doublet) 사이에 입혀졌다⁸⁾.

2) 브레(braies)

중세 남성들은 두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바지를 입었는데, 엉덩이에는 브레를 입고 다리에는 호즈를 착용했다. 의복의 맨 아래에 입혀진 초기의 브레는 크고 헐렁한 것으로 항상 백색의 고운 린넨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주름 잡힌다.

13세기 중엽에 쓰인 'Maciejowski Bible'에는 노동자들이 입은 브레, 반쯤 흘러내린 채 입혀진 브레, 사울 왕(king Saul)이 착용한 브레 등 다양한 브레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브레가 다양한 계층에서 착용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⁹⁾.

청결함을 위해 착용하던 브레는 14세기 중엽부터 짧아졌는데 여전히 앞쪽에 벨트끈을 묶을 슬릿이 있고 좌우 허리 쪽에도 슬릿이 있다¹⁰⁾. 이는 밀착된 호스가 나오면서 전시대에 헐렁하게 늘어진 브레가 변형된 형태였다<그림2>.



<그림2> 브레와 호즈
(The visitors, 1993)

브레의 허리부분에는 많은 분량의 천이 주름 잡히는데 브레가 착용되던 당시 벨트로 조여진 외의의 모여진 주름에 의해서 이 허리밴드는 눈

에 띄지 않았다. 호즈 착용시 브레에 연결되는 부위는 브레의 허리밴드가 당겨지는 끈의 위치와 같은 부위이다.

기사의 경우 브레의 허리밴드는 메일 호즈(mail hose)같이 무거운 아이템을 착용할 때 적절하게 지지대가 되는 이점이 있다.

3) 호즈(hose)

호즈는 길거나 짧았는데 종종 무릎 바로 아래까지 왔으며 모양은 밋밋하거나 주름진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긴 호즈의 경우는 상의에 호즈의 끝부분이 가려서 바지와 거의 구별되지 않지만 때로 끝부분이 보이는 경우 등글게 말리거나 부채꼴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수가 놓인 것이 보이기도 했다.

가장 단순한 호즈는 발목길이에서 끝나는 튜브형인데, 발과 연결된 형태가 더 보편적이고 보존성이 좋았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다리는 같은 색상이 사용되긴 하지만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다.

14세기의 호즈는 바이어스 재단을 하여 활동하는데 요구되는 신축성을 주었으며 길게 연장된 부분이 허리까지 닿아 뿌르쁘웨이나 브레의 허리벨트에 고정시켰다. 종종 호즈는 가죽바닥이나 보강재를 사용하여 신발의 기능을 하였다.

14-15세기의 호즈는 다리모양에 맞춰 재단한 앞, 뒤판 2장에 작은 무릎 넣어 봉합했으며 외관을 위해 솔기는 뒤쪽에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¹¹⁾. 15세기의 호즈는 짧아진 상의로 다리 전체를 드러내게 됨에 따라 호즈를 더욱 공들여 만들었는데 슬래쉬나 포인트(points), 레이스(lace)로 장식되었다.

최초의 유행현상으로 간주되는 파티 칼라(parti-color)는 처음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자하는 소망에서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는데, 호즈의 경우도 한 쪽은 두 가지 색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한 쪽은 제3의 색으로 하기도 했다.

4)블리오(bliaud)

기사제도의 전성기인 12-13세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옷이 점점 비슷해졌는데 남성복이 이처럼 여성스러운 모양을 한 것은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칼과 창으로 하는 영웅적 행동이 기사의 최고 활동으로 간주되던 시기에 남성복이 기이할 정도로 비호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긴 가운 형태의 상의는 발끝까지 닿았으며 가장자리에는 때로 물결모양의 장식을 달고 허리띠를 묶었다.

풍성한 자락이 특징인 긴 블리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분리된 것을 닮은 허리선에서 이은 것인데 스커트부분은 두개의 반원으로 구성되고 가장자리의 중심부만 블리오의 상체부분과 연결되어있다.

로마네스크시대의 복식은 13세기이후의 복식과 비교하면 입체적이지 않고 극히 평면적이다. 그러나 옷의 실루엣은 동체를 자연스럽게 조이는 연구가 진행되어 스커트 부분은 넓고 길었으며 소매 모양은 여러가지로 고안되어 이 시대의 복장을 특색 지었다.

5) 꼬뜨(cotte), 꼬뜨아르디(cotehardie)

꼬뜨 혹은 꼬다(kotta)는 그 이름에 나타나듯이 ‘제집처럼’ 꼭 맞아야 했다. 즉 몸의 형태를 가능한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허리는 마치 개미허리같이 졸라매었다. 1150년경 상류층에게는 꼬뜨 위에 입는 쉬르코라는 겉옷의 등장으로 꼬뜨는 속옷이 되었다.

동체를 자연체형에 가깝게 표현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동체를 끈으로 조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뒷길중심을 목부터 허리까지 세로로 레이싱(lacing)한다. 그러나 뒤에서 조이는 이 방법은 보기 싫은 주름이 생기는 결점이 있어서, 동체의 양쪽에서 조이는 방법도 행해졌는데 등에서 조이는 것보다 체형에 가까운 실루엣이 되었다.

기사의 꼬뜨는 기사가 전성기를 누리는 동안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였다. 기사의 꼬뜨는 색상은 눈에 띄지만 디자인은 단순했으며 끈으로 묶어 고정했고 허리부분부터 아래까지는 주름이 잡혀있었다. 또한 고정쇠와 허리띠를 이용

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스커트부분 앞 뒤로 절개선을 넣어 기사가 편안하게 말을 탈 수 있게 했다.

14세기의 멋쟁이들은 꼬뜨나 튜닉에서 유래된 단순한 형태의 꼬뜨아르디를 뿌르쁘앵 위에 착용하였는데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소매 끝에는 티페(tippets)라고 하는 좁고 긴 장식을 달아 무릎길이까지 늘어뜨렸다. 꼬뜨아르디 위에는 가문의 재산이 될 정도로 비싼 벨트를 거의 엉덩이 부분에 낮게 매었다.

소매부리와 아랫단을 느슨하게 톱니모양으로 자른 대깡(dagging)장식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점점 심해져 계단처럼 여러 층 겹쳐달기도 하고 특히 유명나게 멋을 부린 기사들은 갑옷 위에 걸친 긴 밀리터리스커트(waffenrock)에도 톱니모양을 냈다¹²⁾.

6) 우쁘랑드(houppelande)

우쁘랑드는 고딕시대의 대표적인 복식으로 1360년에 등장하여 15세기를 특징짓는 의복이 되었는데 초기의 것은 신체에 여유 있게 맞고 길이가 길었으며 소매가 바닥에 끌리는 정도로 넓은 것이 특징이다. 소매는 깔대기 모양으로 넓어지며 가장자리는 꽃잎이나 잎사귀 모양으로 매우 장식적이고 커프스, 칼라, 가장자리 등에는 모피장식을 하였다.



<그림3> 우쁘랑드
(Henry V, 1944)

조금 벌려서 단추를 끼우게 된 것도 있었으며 스커트 부분은 풍성하지만 앞, 뒤 혹은 옆에 슬릿이 있기도 했다<그림3>.

재단법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한 우쁘랑드는 땅에 끌리는 길이가 보통이었으나 남자의 것은 종종 종아리 길이의 것도 있었고 승마용은 무릎까지 오는 길이었다.

우쁘랑드는 앞 중앙선이 전부 트여서 단추가 달린 것과 앞 목둘레 부분만을

6) 망토 (manteau)

중세 귀족들은 비잔틴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성장의 경우 대형의 망토를 이용했는데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뒤는 길게 바닥에 끌렸다. 이 망토는 가슴부분을 오픈하여 입기 때문에 약간 긴 장식 끈에 의해서 가슴 앞에서 묶여졌으며, 가슴에 있는 끈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기며 유유히 걷는 모습은 품위를 느끼게 했다. 망토의 안감은 다른 색의 옷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감의 색이 어둡거리게 보여서 그 아름다움이 배가되었다.

12-13세기 초까지의 망토는 기사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평화시 착용한 복장 가운데 주목받는 것이었다. 망토는 원형이나 반원형 또는 3/4원형이었으며 가슴중앙이나 오른쪽 어깨에 브로치나 끈으로 묶어 착용했는데, 소재는 다른 의복보다 한층 사치스러웠다.

14세기의 망토는 전형적으로 많은 단추를 사용하여 오른쪽 어깨에 달았으며 길고 넓은 원형으로 상류층이 착용한 망토는 질 좋은 옷감으로 만들어졌으며 안에 털을 대었다. 밝은 색조의 단색을 선호하였으며, 동양에서 차용한 문양이 있는 것과 후드가 달린 것도 사용하였다<그림4>.



<그림4> 후드달린 망토
(Kingdom of Heaven, 1995)

2. 전투복의 종류와 특징

기사가 된다는 것은 체인메일, 헬멧, 튼튼한 각반, 방패, 말 등 의복과 장비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1) 갬비슨(gambeson)

일반인이 블리오를 입는 것에 비해 기사는 브로뉴(broigne) 혹은 갬비슨이라는 것을 입었는데 이는 카롤링거(Carolingian)시대에서 이미 보인 것



<그림5> 캄비슨
(Kingdom of Heaven,
1995)

으로 질기고 강한 가죽과 린넨을 수직으로 누벼 패당한 저킨(jerkin)이다<그림5>.

꼭 끼는 재킷이나 베스트 형태의 캄비슨은 종종 ‘오그튼(augueton)’이라 부르는 두 층의 두꺼운 솜 사이에 덧대거나 누벼졌고 그 후로 ‘갬부와즈드(gamboised)’라고 불리면서 “갬비슨(Gambeson)”

이라는 다른 이름과 아랍어에서 파생된 용어인 아케톤(aketon)으로도 불린다.

고리를 연결하여 만들어진 당시 갑옷은 떨어져나갈 경우 감염을 동반한 깊은 부상의 우려가 많았다. 이런 결과 캄비슨 같은 일종의 보호의 복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갬비슨은 11세기와 12세기의 전사들이 보통 갑옷 아래에 착용했으나 평범한 검이나 창에 견딜 만큼 충분히 강했기 때문에 때로 갑옷 없이 입기도 했다. 낮은 계급의 보병이 전투에서 보호복으로 갬비슨을 유일하게 착용하는 것에 비해, 기사는 체인메일 아래 착용하고 있다. 덜 기동적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뛰어난 방호를 위해 1개 이상의 캄비슨을 덧 착용하기도 했다.

갬비슨은 말 타기 용이하도록 앞, 뒤로 슬릿이 있으며 허벅지 위에 버클을 매거나 끈을 묶도록 2개의 패널이 있고 방어하기위한 스커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¹³⁾.

때로 밑단 둘레에 슬래쉬를 넣어 꽃잎이나 부채 모양같은 효과를 주는 대깅(dagging)이나 부채꼴 모양의 장식 대그즈(dagges)도 보인다.

기사를 모시는 귀족출신의 시종들은 호스 사어전(horse serjeants)을 따로 형성했는데 이들은 보다 단순한 방어복으로 캄비슨을 입고 모직, 가죽 혹은 금속 모자를 썼으며 체인 메일이 개량되어 기사들이 캄비슨을 입지 않게 된 12세기 말까지도 많이 착용하였다.

2) 체인 메일(chain mail)

9-15세기 중세유럽의 기사들은 작은 쇠사슬 고리를 엮어 만든 사슬갑옷인 체인 메일(Chain mail)을 입고 있는데 각자 준비해서 입기 때문에 모양새는 저마다 달랐다.

이 갑옷은 1세기경 로마 병사의 체인 메일에 기원을 둘 만큼 오래된 것으로 메일(mail)은 프랑스어인 ‘maille’에서 유래했으며 ‘그물’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macula’에서 왔다.

체인메일은 강철 고리나 쇠고리를 이어서 만드는데 그 끝은 서로 마주 대고 눌러 용접하거나 리벳으로 고정하게 된다. 고리는 때로 철판으로 찍어서 만들어진 뒤 리벳으로 고정되고 고리들이 엇갈리게 줄지어 연결된다. 가장 흔한 형태는 “four-in-one”으로 각각의 고리는 네 개의 다른 고리와 연결돼 있다.

체인 메일은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과 수리의 용이함, 유연한 착용감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8-10만개의 사슬제작으로 인한 상당한 제작기간이 소요되어 고가(高價)라는 점과 녹이 슨다는 점, 추위와 더위에 의한 열전도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체인메일은 방어하려는 신체부위에 따라 특수하게 모양이 만들어졌다. 머리의 경우 코이프(coif, 두건), 쇠사슬드림(aventail, 목의 좌우 및 뒤쪽에 드리워 덮는 것), 쇠사슬 프린지(mail fringe), 주교의 망토(bishop's mantle, 아래쪽 목과 어깨를 덮는 사슬갑옷)가 있고 몸통의 경우 호버크(hauberk, 셔츠모양의 사슬갑옷), 스커트, 브리치즈(breeches)가 있다. 팔의 경우 사슬소매와 미튼(mittens)이 있고 다리의 경우 긴 다리싸개인 쇼즈(chausses)와 발 덮개 사바톤(sabaton)이 있다¹⁴⁾.

몸통과 팔을 위해 중요한 갑옷인 허버크(hauberk)는 일반적으로 수천 개의 강철 고리로 만들어지며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고리 한 개 대신 두 개가 사용되기도 했으며 일부 고리에는 제조자의 표시가 되어있는 것도 있다. 13-14세기의 무릎길이는 허버크(hauberk)는 소매가 손목 길이로 길어지고, 목둘레에는 두건과 일체화 되었다.

손 보호용 체인미늘 장갑이 11세기 초에 빈번하게 착용되다가 판금갑옷(plate armour)이 대중화된 1330년경 사라졌듯이¹⁵⁾ 갑옷이 발전하면서 체인 메일이 판금갑옷에 대해 부차적인 것이 되자 처음에는 다양한 판금을 연결시키는 요소로 사용되다가 15세기에는 팔꿈치, 목, 무릎처럼 보다 취약한 부위를 보호하는데 사용하게 되었다.

3) 플레이트 아머(plate armor)

기사의 갑옷은 맞춤형처럼 잘 맞아야 싸움할 때 움직임이 편했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이 요구되었고 갑옷제조자는 병기 제조공과 더불어 선망하는 전문 직업인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¹⁶⁾.

플레이트 아머 즉, 판금갑옷으로 가는 첫 단계는 다리와 팔꿈치, 무릎을 방어하기 위한 단단한 금속방호물의 개발을 초래했다. 1330년경에는 몸통을 위한 단단한 갑옷이 개발되어 14세기에 들어서자 판금갑옷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¹⁷⁾.

허벅지에서 판금갑옷으로 이행되면서 팔과 다리는 완전히 금속제 갑옷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동체부분을 방어하는 갑옷은 몸에 밀착하도록 여러 장의 긴 금속판을 늘어세우고 안을 가죽이나 두툼한 천으로 감싸고 못을 박아 고정하는 코트 오브 플레이트(coat of plate)를 형성하게 된다.

몸 전체를 철판으로 중무장한 갑옷은 1400년경 널리 보급 되었는데 이러한 갑옷의 최초 모델은 약 11개의 철판이 몸 전체를 보호하는 갑옷이었으며 기사의 원활한 호흡을 위해 가슴판을 아치형으로 만들었다.

1350 - 1360년경 등장한 장갑허리가 잘록하고 짧은 커프스가 플레어된 플레이트 장갑은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작게 오버 랩되는 금속판에 의해 완성되었다.

15세기에 들어 기사의 전신은 판금 갑옷으로 덮이게 되어 갑옷의 전체 중량은 60 - 80kg에 육박하였고 따라서 14세기 이후의 기사는 종자가 작동시키는 갑아올리는 장치에 끌어올려져야 말에 오를 수 있었다¹⁸⁾.

이후 화기의 발달로 값비싸고 무거운 갑옷으로 전신을 무장한다는 것은 의미를 잃게 되어 점차 부유한 기사들의 화려한 전시용 갑옷이 되었다.

15세기경 기사갑옷은 마스크, 턱받이, 목가리개 등으로 구성된 투구(helmet)와 요갑, 허리받이, 창 고정대가 있는 흉갑(breast plate), 견갑, 상완갑, 팔꿈치 받이, 하완갑, 장갑등으로 구성된 상지부분, 허벅지받이, 무릎받이, 종아리받이, 쇠구두, 박차로 구성되는 하지부분으로 완성되었다.

4) 슈르코(surcoat), 타바르(tabard)

12세기 중반부터 서구의 기사들이 허벅지 위에 입은 옷옷인 슈르코의 가장 단순한 것은 팔이 나오는 곳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봉제하는 형식이며 옆선이 터진 것도 있었다.

십자군전쟁동안 갑옷, 투구, 무기를 보호하고 반사되는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며, 숨 막히는 무더위나 추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착용된 의복이다.

또한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를 그려 넣은 성 게오르기우스(St. George)의 상징을 몸에 두르는 것으로 십자군의 단결과 긍지를 과시했을 것이며 옷에 십자가를 수놓아 참회하는 마음으로 원정에 임하였다.

또 다른 슈르코의 역할은 기사 자신의 문장(heraldry)을 그려 넣어 비슷비슷한 갑옷으로 누구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활약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마다 문장을 가지고 있어 그 숫자가 엄청났기 때문에 기사의 문장을 숙지하고 있는 문장관이라는 관리가 등장하여 전장을 달리는 문장을 보고 기사의 무공을 기록하였다.

초기 슈르코는 항상 흰색이었으나 루이 IX세를 따라 다니는 40명의 기사들이 녹색의 슈르코를 입은 것처럼 13세기 초에는 특정한 기사집단을 구별하기 위해 색이 있는 슈르코가 착용됐다.

14세기의 슈르코는 더욱 짧아져 둔부까지 오는 것이 인기가 있었는데 14세기 첫 사분기가

끝난 후 쉬르코는 어깨, 가슴, 허리에 점점 더 달라붙기 시작했으며 쥐폰(Jupon)이라고 부른 쉬르코의 변형이 됐다.

15세기 동안에는 긴 쉬르코과 짧은 쉬르코가 동시에 착용되었는데, 긴 것은 일반적으로 연장자나 의례적인 경우 높은 계급에 속하는 남성임을 나타내며, 짧은 것은 비공식적이고 좀더 젊은 차림새에 어울렸다.

쉬르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타바르(tabard)인데 쉬르코가 활동의 편의를 위해 앞, 뒤 모두 가운데 밑단부터 위쪽으로 깊은 슬릿이 있는 것에 비해 타바르는 넓고 짧은 소매가 달린 것으로 옆이 트여있고 문장으로 장식되어있는 폭넓은 것이다.

타바르는 헨리 VI세의 통치가 시작된(1422년) 초기에 처음으로 군사용 복장 중 한 가지로 채택되어 갑옷 위에 입었고 착용자의 문장을 새겼다. 그



<그림6> 타바르
(A Knight's Tale, 2001)

타바르의 길이는 매우 짧고 가톨릭 사제의 달마티카와 같이 슬릿이 들어가며 에르론(ailerons)이라는 폭넓고 짧은 소매가 있다¹⁹⁾. 15세기가 끝날 때에 타바르는 문장관의 공식적인 복장으로서 토너먼트 개회선언과 경기심판 등 의식용 의상으로 착용됐을 뿐 군용 장비로서는 사용

되지 않게 되었다<그림6>.

5) 뿌르쁘엥(pourpoint), 더블릿(doublet)

13세기초 의복 만드는 길드는 분화되어 외투 재단사, 예복 재단사, 의복수선공으로 구분되었으며 1296년에는 재단사 조합이 일상복을 만드는 뿌르쁘엥티에르(pourpointiers)와 갑옷 속에 입는 누빈 속옷을 만드는 두블레띠에르(doubletliers)로 나뉘었다.

뿌르쁘엥은 판금갑옷의 가장자리 부분이 꼭 맞고 비교적 뽕족해서 찰과상을 입었는데 이를 방지하기위해 두꺼운 보호물이 필요하게 되어

신체에 잘 맞게 재단하여 심을 대고 누빈 것이다.

초기의 뿌르쁘엥은 다른 의복 바로 아래 벨트를 매지 않고 착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350년 경이후에는 가장 외의로서 벨트를 하여 착용하였다.

1367년으로 기록된 리옹(Lyon) 피복역사박물관 소장의 샤를르(Charles) 5세의 뿌르쁘엥은 허벅지를 덮을 정도로 긴 재킷형태로 점점 좁아지게 하여 허리를 딱 맞게 하였으며 소매는 완전한 원형으로 디자인하여 착용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겉감으로는 팔각형의 테두리 안에 금사를 이용해 사자와 독수리를 번갈아 수놓은 상아색 실크를 사용했으며 안감으로는 질 좋은 린넨 캔바스를 사용하여 심으로 솜을 넣어 겉, 안감을 가로로 함께 박았다. 앞여밈과 소매외곽선에는 많은 단추와 단추구멍이 장식되어 있으며 안쪽 솔기에는 호즈를 고정하는 포인트(points)가 달려있다.

14세기 말경에 뿌르쁘엥의 옷깃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원래 적당한 높이이던 것이 15세기 초에는 귀밑까지 올라왔으며 이를 카세이유(carcaille)라고 한다. 또한 길어도 점점 짧아져 엉덩이를 가렸으며, 비슷한 시기에 뿌르쁘엥은 외투가 되기 시작했고 영국에서는 15세기 중엽에 뿌르쁘엥을 더블릿(doublet)이라고 불렀으며 1520년경에는 의식상 착용하는 의복으로서 매우 드문 옷이 되었다.

6) 헬멧(helmet)

헬멧은 공격에서 머리를 보호 할 뿐만 아니라 시야확보와 쾌적함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당시의 전술에 따라 모양과 종류를 바꾸게 되었다.

중세의 머리는 허버크(hauberk)에 직접 달려있는 메일 코이프(mail coif)에 의해 커버되었으며, 조금 뒤 시대에는 명확히 분리된 메일 코이프가 보이는데 이것은 패딩된 백색 린넨제 코이프(coif) 위에 썼다.

이 메일 코이프는 머리둘레에 가죽 끈으로 둘러맴으로서 단단히 고정되었으며 13 - 14세기에는 투구아래 늘어뜨려 쓰는 애븐테일(aventail)에

대치되었다.

기사들이 11-13세기 동안 널리 사용한 투구는 스컬 캡(skull nasal cap)이라고 하는 노르만(norman) 헬멧으로 코를 보호하기 위한 판인 치크 피스(cheek piece)를 붙인 원추형 이었다²⁰<그림7>.

12세기중엽에서 13세기중엽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헬멧의 형태인데 이전 세기의 양식이 여전히 사용됐으나 중요한 부분이 추가됐다. 헬멧에 얼굴보호 판이 추가돼 머리 부분의 방어력이 훨씬 나아졌는데 유명한 배럴 헬멧(barrel helmet)은 1250년에도 사용됐고 크기가 커서 금속제 머리모자가 밑에 받쳐 착용되기도 했다.

이 배럴 헬멧은 윗부분이 평편하며 머리 위에서부터 뒤집어쓰는 양동이형태로 눈 부분의 좌우로 갈라진 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좁은 시야 때문에 적군인지 아군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방패에 문장을 그리는 관습이 생기되었다. 이 투구는 앞면에 십자로 보강판을 덧대 강도를 증가했고 쓸 때는 체인 메일 두건이나, 그 위에 면으로 된 헤드기어를 썼다. 또한 얇은 판금을 이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내부에 빈공간이 있어 타격력을 충분히 분산 흡수할 수 있으며 하부에 뚫린 작은 구멍은 공기구멍 역할을 했다.

버킷(bucket)형인 슈가로프 헬멧(sugarloaf helmet)은 고딕의 전성기인 13-14세기에 많이 이용되었는데 초기에는 윗부분이 평탄한 것도 있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머리형에 맞도록 원추형이 되며 배럴형보다 구조적으로 진보된 형태이다²¹<그림8>.

한편 14세기에 등장한 베서넷(basinet, bascinet)은 체인 메일을 턱수염처럼 늘어뜨려 목의 방어도 완벽한 완성도 높은 헬멧으로 그 위에 핀에 의해 벗겨낼 수 있는 바이저(visor)가 덧붙여지곤 했는데 이 바이저는 싸울 때는 내리고 그 외에는 올릴 수 있었으며, 폭염의 날씨에도 호호하기가 불편하지 않아서 여름에도 즐겨 사용했다.

토너먼트용의 헬멧의 시계(視界)는 더욱 제한되며 15세기에 만들어진 그레이트 헬멧(great helmet)은 눈 틈새의 하부가 상부보다 돌출되어 수평으로 놓일 경우 위와 아래는 서로 겹치게 되고 몸

을 앞으로 향해 기울이면 틈새로 앞을 볼 수 있지만 가슴을 펴면 완전히 전방의 시계가 가려지는 것이었다.

헬멧의 정수리에는 크레스트(crest)라는 투구장식이 덧붙여졌는데 장식된 헬멧은 기사 외에 쓸 수 없는 것이다. 투구장식의 형태는 동물, 새, 또는 다양한 물체로 보통 방패나 기(旗)에 사용된 문장과 같은 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적의 무기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나무나 삶은 가죽으로 만들기도 했다.

15세기에는 판금으로 정수리부터 목을 완전히 감싸는 아밋(armet)과 아름다운 투구인 샬렛(sallet)이 등장하는데 각각 턱을 보호하기 위한 턱 가리개와 목을 보호하기 위한 쉐이 달려있었다.

7) 허리띠, 방패, 박차(spur)

12세기 십자군 기사의 관습 중에 하나는 허리띠에 지갑을 부착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신병들에게 순례자의 지팡이와 십자가와 지갑이 주어졌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유통 가능한 값진 것들을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허리띠는 옷과 관련된 장신구 중에서 꼭 갖추었던 것으로 기사소설에서는 허리띠에 박힌 보석이 그것을 두른 사람에게 명예와 행운을 보장하였으며, 검을 차고 다니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기사들 사이에서는 존경, 무사안전, 승리를 보장하였다.

한편, 방패는 손의 연장(延長)으로 적의 무기를 안전하게 막아내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중세유럽 기사가 사용했던 방패의 기본이 되는 것은 11세기부터 사용한 카이트 실드(kite-shaped shield)로 옛 서양의 연 모양을 하고 있으며 기다란 가죽 벨트가 달려있어서 어깨에 매고 사용하였다.

방패의 앞면에는 기하학적인 도형이나 사용자가 생각한 용맹스러운 괴수 등을 그리게 되었으며 12세기가 되자 기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장(紋章)을 그려 넣는 것이 유행하였다. 문장을 들고 등장한 최초의 기사는 1130년경 양주의

백작으로 라틴어로 ‘플란타 게니스타이(planta genistae)’인 금잔화 가지를 들고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유명한 플랜태저넷(plantagenet)이라는 가문 이름이 유래했다²²⁾.

13세기에는 다리에 갑옷을 씌울 수 있게 되자 카이트 실드만큼 긴 길이는 필요 없게 되어 방패 길이는 짧아지게 되었고 다리미모양의 히터 실드(heater shield)가 등장하게 된다.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파비스(pavise)라는 방패가 등장했는데 높이가 1.5m 정도로 몸을 감추는데 사용하기도 했지만 갑옷이 아주 두터워진 15세기가 되자 무용지물이 되어 더 이상 들지 않게 되었고, 가죽벨트를 이용해 갑옷의 한쪽 어깨를 보호하는 자그마한 방패인 타지(target)라는 명칭으로 갑옷의 일부로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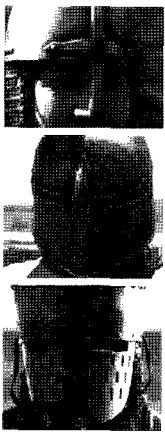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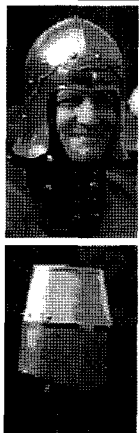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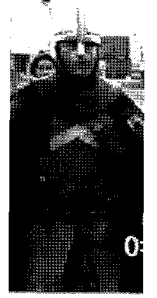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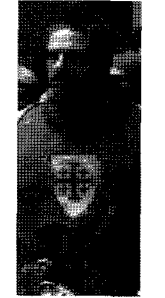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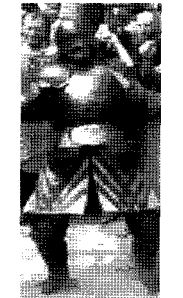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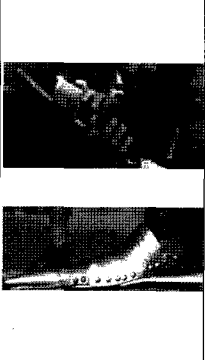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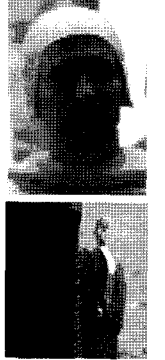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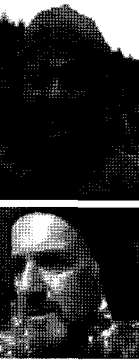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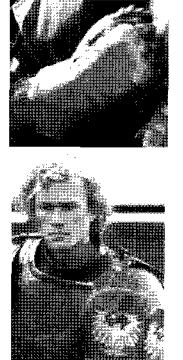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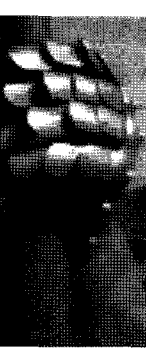
박차(spur)는 기원전 4세기부터 로마인에 의해 이용되었으며 프릭(prick) 박차로 알려진 것의 기원이다. 11-12세기에 사용된 박차의 목 부분은 짧고 곧았으며, 13세기에는 위로 향하는 자루부분에 아래로 향하는 목 부분이 있으며 그 세기의 끝으로 갈수록 더 길어진다. 목 부분의 끝에 뾰족한 작은 톱니가 있는 라우얼(rowel)박차는 영국에서 1280년경에 처음 소개되었다. 14세기에는 전투마에 오를 때의 박차는 매우 긴 목 부분을 지닌 것으로 발에 끈으로 묶이던지 발바닥의 뒤꿈치에 리벳으로 고정되었다.

프랑스의 기사 서민식은 특히 엄숙한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칼을 수여받고 칼에 부착된 가죽 허리띠를 착용함으로써 기사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시종으로 부렸던 기사가 박차를

<표1> 시대별 기사복의 특성

	일반복식	보호복	갑옷	두구	기타
11세기	브레, 호즈 헝즈, 튜닉	갬비슨	가죽제+금속	노르만 헬멧	둥근 방패 카이트 실드 (kite shield) 박차 (prick spur)
12세기	브레, 호즈 헝즈,블리오, 꼬뜨	갬비슨 쉬르코	체인메일	노르만 헬멧 메일 코이프	카이트 실드 (kite shield) 문장(紋章) 코이프 박차 (prick spur)
13세기	브레, 호즈 슈미즈, 꼬뜨	갬비슨 쉬르코	체인메일	노르만 헬멧 메일 코이프 배럴 헬멧	히터실드 (heater shield) 박차 (rower spur) 문장(紋章)
14세기	브레, 호즈 꼬뜨아르디 우쁘랑드	쉬르코(쥐폰) 쁘르쁘헝	체인메일 관금갑옷	메일 코이프 버킷형 헬멧 바시넷	파비스(pavise) 긴 최장갑 (gauntlets) 패튼, 박차 (rower spur) 문장(紋章)
15세기	브레, 호즈 우쁘랑드 다블릿	쉬르코 타바르	호버크 관금갑옷	아릿 샬럿 바시넷 그레이트 헬멧	박차 (rower spur) 파티드 칼라

<표2> 영화에 표현된 시대별 기사복의 특징

	<비지타>	<킹덤오브헤븐>	<브레이브하트>	<기사 윌리엄>	<잔다르크>
투구					
갑옷					
쉬르코					
기타					

죄어주었다. 서임식 때 입는 의복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붉은 상의는 믿음과 명예를 피로써 지키겠다는 표시이고 흰색의 허리띠는 정절을 의미했다.

IV. 영화에 표현된 기사복의 특징

12세기 기사복은 영화 <비지터>와 <킹덤 오브 해븐>을 분석하였고, 14세기의 기사복은 <브레이브하트>와 <기사 윌리엄>을, 15세기 기사복은 <잔다르크>와 <헨리 5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표2>.

1. 영화 <비지터>와 <킹덤 오브 해븐>에 표현된 12세기 기사복

1) 영화 <비지터>(The visitors). 1993.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속한 프랑스 측의 기사복식과 영국 기사의 복식을 볼 수 있다.

프랑스 기사인 주인공 고드프로이는 무릎길이의 호버크와 메일 코이프를 입고 그 위에금속제 흉갑(breastplate)과 코 보호대가 있는 원추형 투구, 금속제 긴 장갑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문장이 있는 올리브색 슈르코를 덧 입고 있다. 종아리중간 길이의 슈르코는 전후좌우로 밀단에서부터 깊게 슬릿이 있어 말타기 용이한 스타일이며 허리에는 주머니와 검을 찌할 수 있는 장식 벨트를 하였다.

한편 영국기사의 모습은 역시 코보호대가 있는 원추형의 노르만 헬멧을 쓰고, 체인메일 위에 방패문장이 있는 슈르코를 입었으며 턱받이형의 목보호대와 벨트를 했다.

일반적으로 기사의 슈르코는 일반 슈르코보다 약간 넓었으며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었고 칼을 차기 위한 허리벨트를 둘렀기 때문에 엉덩이 부위에 잔주름이 많이 잡혔다. 슈르코의 길이는 종아리 중간정도의 길이로 내려왔는데 점차 무릎길이가 되었으며 뒤보다 앞이 짧은 것도 있었다.

주인공이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에서는 흰색의 주름진 얇은 천으로 만들어진 짧은 브레와 다리실루엣이 그대로 들어나는 딱 붙는 자주색 호즈, 끝이 뾰족한 신발 빨렌느(poulaines), 나무신 패튼(pattens)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발끝이 긴 신발인 크랙코우(crackowes) 혹은 빨렌느는 서유럽에서 12세기에 착용됐다. 이 구두의 유래는 앙주의 풀크 백작(Count Fulk of Anjou)이 전통적으로 신던 것에서 비롯됐는데 그것은 일종의 발 기형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지만²³⁾ 이 신발은 무릎 꿇을 때도 방해가 되고 전쟁 시 위험했을 것은 확실하다.

한편, 근동과 중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끝이 뾰족한 신발을 신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12세기 십자군 기사들이 바다 너머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13세기에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오버슈즈인 패튼은 덧신의 한 형태이거나 밑창을 든 보호용 신으로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 지다가 나중에 가죽으로 만들어 지기도 했다. 14세기에는 흔해졌으나 여전히 드물며 칠이나 박음질 또는 돈을새김 된 문양으로 장식돼 있기 때문에 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신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²⁴⁾.

영화에 등장한 끝이 뾰족한 패튼이나 쇠구두 사바톤(sabaton)은 판금갑옷이 착용되었던 14세기 이후의 것이므로 12세기를 배경의 영화복식으로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킹덤 오브 해븐>(Kingdom of Heaven). 1995.

영화의 첫 장면에는 십자군원정에서 돌아오는 기사들의 다양한 투구 모습이 비춰지는데 당시 일반적이던 원추형 헬멧 중에서도 코 보호대가 없는 것과 십자가모양으로 코 보호대가 장식되어 있는 노르만 헬멧이 인상적이며, 챙이 있는 반구형과 챙이 없는 금속 헬멧도 보인다. 전투신에서는 배럴 헬멧과 바이저가 있는 초기의 바시넷 헬멧도 보인다.

주인공 발리안은 자주색과 베이지색으로 배색되고 패딩된 깡비슨을 입고 있는데 소매는 길

에서 바느질되어있다. 발리안의 전투복은 손등을 덮는 소매길이의 호버크와 발등을 덮는 길이의 사슬호즈를 입고 좌우가 자주색과 베이지색으로 배색된 문장이 들어간 슈르코를 입고 있으며 발에는 톱니모양의 박차를 하고 있다.

12세기 말엽부터 몇몇 기사단은 색깔 있는 슈르코를 입었는데 영화에서도 흰색 슈르코의 성전기사단과 푸른색 슈르코의 기사단, 자주색과 베이지색이 배색된 슈르코의 기사단이 등장한다<그림7>.

성전 기사단은 붉은 십자가가 있는 흰색의 슈르코를 입고 있는데 우두머리인 레이놀드는 가장자리에 흰색의 털 장식인 바닷길이의 풍성한 망토를 착용하고 있어 높은 신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문헌에 따르면 성전 기사단(Knights Templars)은 갑옷 위에 흰색 슈르코를 입었고, 항상 교황 호노리노 2세(Pope Honorius II)가 정해준 흰 망토를 입고 다녔다. 교황 에우제니오 3세(Pope Eugenius III)는 그들에게 붉은 팔각십자가를 하사해서 망토의 왼쪽 어깨에 걸치게 했으며 하급 기사는 검은 망토를, 준기사(esquire)는 갈색 망토를 걸쳤는데 모두 그 위에 붉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다.

12세기말의 새로운 모자형태인 코이프(coif)는 작고 평범한 흰색의 두건으로 아기들의 머리쓰개처럼 턱 밑에서 뺀데 영화에서는 성전 기사의 흰색 코이프, 고프리의 갈색 코이프를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대의 남성들은 머리를 인공적으로 곱실거리게 하였는데 영화에서 등장하는 발리안 역시 웨이브 있는 단발 머리스타일을 보여준다.

영화에 보이는 노르만 방패형의 카이트 실드(kite shield)는 긴 눈물방울 모양이었고 수직방향으로 V 모양의 물받이처럼 휘어져 있었다. 이것은 아래로 확장돼서 기병의 다리를 잘 방호해주었는데 두꺼운 나무로 만든 후 생가죽이나 강철을 결합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림7>누빈 슈르코 (Kingdom of Heaven, 1995)

2. 영화 <브레이브 하트>와 <기사 윌리엄>에 표현된 14세기 기사복

1) <브레이브 하트>(Braveheart). 1995.

악명 높은 전제군주로 등장하는 롱생크는 플랜데저넷 왕조의 5번째 왕인 에드워드(Edward) I 세를 말한다. 영화에서는 초야권(初夜權) 즉, 평민남녀가 혼인시 그 지방의 영주가 신부와 첫날밤을 보내야한다는 프리마 녹테를 부활시켜 불란의 씨를 만들었다.

영화에서 출전 할 때의 그의 복장은 체인메일 위에 문장이 있는 주황색 슈르코, 메일 코이프 위에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며 평상시에는 자주색 코이프와 붉은 슈르코, 자주색 망토차림이다.

스코틀랜드를 탄압하는 영국의 기사들은 체인 메일을 입고 어깨에 건갑을 했으며 옆선이 바느질되지 않아 활동성이 보이지는 넓은 주황색 슈르코를 입거나, 금속판이 붙어있는 갑옷 위에 슈르코를 입고 머리에는 버킷형 헬멧을 쓰기도 했다<그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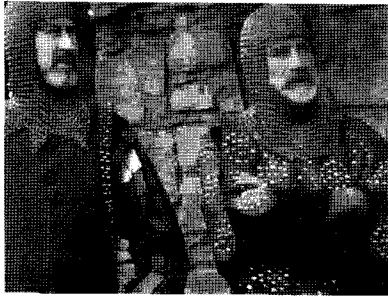
영화에서 보듯이 14세기까지 체인메일은 평균적으로 병사들의 기본적인 갑옷이었다. 체인메일의 주된 용도는 착용자가 적의 검에 잘려나가는 것을 막는 일이었지만 체인메일은 충격에 의한 손상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대개 두껍게 속을 채운 속옷 위에 입었다.

호버크(hauberks)는 나팔모양으로 펼쳐진 소매가 팔의 중간까지 덮였으며 착용자의 무릎아래까지 닿을 정도로 길었으며 소매가 길어 손등을 덮는 미튼으로서 그 역할이 확장된 것도 있었다. 호버크보다 더 짧은 형태인 호버전(haubergeon)이 보다 정기적으로 사용된 때이기도 했는데 무릎 바로 위까지 내려왔다.

헬멧은 얼굴부분이 오픈되고 두상에 꼭 맞으며 뒷머리를 덮는 원추형의 헬멧이 많이 등장하는데 헬멧 아래에는 목 부분을 덮는 가리개가



<그림8> 버킷헬멧과 슈르코 (Braveheart, 1995)



<그림9> 메일 코이프
(Braveheart, 1995)

있는 다양한 재질의 후드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9>는 메일코이프(mail coif)의 여러 형태이며, 메일 코이프 위에 착용됐던 큰 헬멧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헬멧이 움직이지 않도록 머리 윤곽에 맞춘,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지지대가 필요했으므로 머리 부위의 안감은 더 정교하게 맞춰졌고 13세기이후에는 매우 정교해진 투구가 흔히 사용됐다.

2) <기사 윌리엄>(A Knight's Tale). 2001.

기사들의 모의 시합인 토너먼트(tournament)는 11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는데 마상 창 시합 형태를 취해 승자는 상대의 무기나 갑옷을 전리품으로 획득하며, 사모하는 귀부인으로부터 화환 선물이 주어지는 스포츠요 구경거리였고, 명예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영화에서 주인공 윌리엄은 애드헤머 백작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갑옷을 입고 있는데 처음 마상창경기에 출전할 때의 모습은 기동식 마스크인 바이저(visor)가 있는 두정이 둥근 바시네형 헬멧에 넓적다리에 늘어뜨리는 방호구인 태셋(tasset)이 붙어있는 흉갑을 착용하고 있다. 검투 장면에서는 얼굴의 많은 부분이 오픈되는 면격자형의 헬멧을 썼다.

애드헤머 백작의 갑옷은 보다 견고해 보이는데 팔은 팔꿈치에서 손목을 보호하는 장치인 뱀브레이스(vambraces)과 긴 쇠장갑인 곤틀릿(gauntlets)으로 보호되며 넓적다리는 강철로 만든 넓적다리 가리개인 퀴즈(cuisses)로 덮여있고 발에는 박차가 부착된 길고 끝이 뾰족한 쇠구두인 솔러렛

(solleret)을 신고 있다.

마상 시합을 벌일 때 착용한 갑옷은 매우 무거웠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종종 기증기로 말에 태워졌고 낙마만 해도 부상당했기 때문에 안장에 고정되었다<그림10>.



<그림10> 승마용 기증기
(Henry V, 1944)

기사들은 말위에서 쓰는 긴 창인 랜스(lance), 검이나 갑옷을 토너먼트 용으로

안전하게 개량해 나갔는데 랜스는 창끝이 없거나 왕관 모양의 창끝을 달았고 손잡이에는 우산모양의 보호대 밤플레이트(vamplate)를 달았다. 실제 전투에서는 판금갑옷을 착용했지만 토너먼트에서는 보다 두툼고 크게 만들었으며 몸의 표적이 되는 왼쪽 상반신 방어를 위해 왼쪽 가슴과 왼쪽 어깨를 지키는 폴드론(pauldron)이 커지고 방패가 부착되었다.

3. 영화 <잔다르크>(Jeanne d'Arc)에 표현된 15세기 기사복

영화속의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사들은 15세기에 완전히 갖춰진 판금갑옷을 착용하고 있는데 바세넷은 앞목과 턱을 보호하는 비버(bevor)로 더 견고해졌으며 목 부분에는 고어거(gorger)로 보강되고 얼굴가리개인 벤테일(ventail)에 의해 기능적으로 폐쇄되는 투구를 쓰고 있다.

더욱 견고해 보이는 차림으로는 체인메일 위에 착용한 흉갑과 어깨를 보호하기 위한 폴드론(pauldron), 상완을 보호하기 위한 리브레이스(rerebrace), 팔꿈치보호구인 엘보 깃(elbow-cop), 하완 보호구인 뱀브레이스(vambrace), 긴 쇠장갑 곤틀릿(gauntlets)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다리는 넓적다리 가리개인 퀴즈(cuisses), 무릎보호구인 니 깃(knee-cop), 종아리덮개인 그레이브(greave)로 덮고 있다. 또한 영화에 등장한 금속의 긴 장갑 곤틀릿은 손가락장갑형태로 손가락관절마다 미늘이 끼여 동작이 자유로운 섬세한 것이었다.

13세기 말에 사용하기 시작한 에일렛(Aillettes)



<그림11> 에일렛(Ailettes)
(Jeanne d'Arc, 1999)



<그림12> 파티드칼라
(Henry V, 1944)

은 어깨와 겨드랑이의 앞부분을 방어하는 것으로 철판으로 만들어졌는데 보통 사각형이지만 때때로 둥글거나 오각형 또는 마름모꼴이었다. 그것은 두 개의 끈으로 체인메일에 부착됐는데 그 끈은 에일렛에 난 구멍을 통과한 후 서로 묶여졌다<그림11>.

쉬르크는 파티칼라의 유행으로 붉은 색과 푸른색으로 나뉘져 있으며 문장으로 장식되었으며(그림12), 15세기 초반 동안 머리 형태는 높은 칼라에 적당하도록 귀 위 정도의 길이였고 사발을 뒤집어 놓은 듯 짧게 깎았고 후두부를 면도한 머리형으로 바뀌었다. 15세기중기이후에는 수염도 완전히 깎았는데 당시 목을 감싸는 어깨 깃이 달린 후드의 형태상 머리를 짧게 깎지 않을 수 없었다.

V. 결론

중세의 유행을 널리 확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귀족과 기사계급이었으며 미적 감각의 유무를 불문하고 중세패션에 기여하였다. 중세 배경의 영화를 분석하여 기사복의 시대별 특징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시대나 높은 계급의 복식에는 화려한 장식이나 소재를 이용한 자기과시적인 디자인이 보이는데 기사들도 자신의 신분과 맞는 복장을 입어 자신을 다른 신분의 사람과 구분하였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 <브레이브하트>에서 메일코이프 위에 링이나 관을 착용하여 신분

을 표시하거나, 태슬 장식이 있는 후드가 붙은 풍성한 망토 혹은 털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풍성한 망토를 착용한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영화 전반에 등장하는 십자군 기사 여러 민족들을 모이게 하여 착장양식과 의상의 특수성에 다양성을 제공하였는데 당시 외국의 것을 선호하였던 경향은 변화를 추구하는 욕구를 만들었고 유행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짧은 길이의 의복과 꼭 붙는 옷은 중세의복 전체를 변화시켰고 이는 기사복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십자군 기사들이 복식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와 먼지로부터 무기를 보호하고 햇빛의 급속반사로부터 눈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외투였던 쉬르크와 판금 갑옷을 착용하게 되면서 등장한 뿌르뿌웨를 일반적으로 입게 된 것이다. 또한, 영화에 표현된 모든 쉬르크와 타바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사개인을 식별하는 표식에 이용되던 문장(紋章)이 귀족의 가계를 나타내는 심벌로 제도화 된 점은 기사복식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넷째, 기사의 갑옷은 전쟁에서 신체보호를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13세기 이후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운동성과 방어성이 증시되며 화려한 스타일이 된다. 또한 기사복의 발달은 의복의 스타일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무거워 보이는 상체와 가벼워 보이는 하의로 남성미를 더욱 강조하게 되어 중세 복식에서 남녀의 성차(性差)를 더욱 나타나게 하였다.

제1차 십자군 원정 때 사용되었던 군복은 대부분 철 장식이 달린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원정에서 돌아온 후인 12세기초 이후의 갑옷과 무기는 12세기 배경의 영화의상에서 보듯이 크게 변해서 체인메일 위에 쉬르크를 입고, 머리는 메일 코이프로 보호되어 있으며, 다리는 쇠사슬 호즈를 신는 체인메일시대를 맞게 되었다.

13 - 14세기의 변화된 갑옷은 기사복에 외적 변화의 큰 계기를 제공했는데, 효과적인 방어무기를 찾게 되면서 체인 메일은 판갑옷에 의해 밀려나게 되었고 14세기와 15세기 배경의 영화

의상에서 보듯이 갑옷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랐다. 우선 셔츠와 브레, 호즈를 입고, 팔과 다리는 금속보호구로 덮인다. 그 다음에 패딩된 겐비슨, 그 위에 허버크와 판금갑옷을 입은 뒤 그 위에 쉬르코를 입었으며 폐쇄형 헬멧과 금속장갑 끈틀릿으로 완전 무장하였다.

중세 중, 후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복식에 나타난 기사복<표2>은 일부에서는 시대를 앞지른 소품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복식의 시대적 사실에 준하여 재현되어 있었고 13세기를 전후하여 기사의 전투복의 양식이 큰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1) 콘스탄스 브리텐부셔, 강일휴 역(2005). *귀족과 기사도*. 서울: 신서원, p.42.
- 2) 須田武郎, 이완진 역(1997). *중세기사 이야기*. 서울: 나이즈 나이즈, p.31.
- 3) 樺山紘一(1989). *ヨーロッパの出現*. 東京: 講談社, p.106.
- 4) MAX VON BOEHN, 이재원 역(2000). *패션의 역사-중세부터 17세기 바로크 시대까지*. 서울: 한길아트, p.49.
- 5) Herber Norris(1999). *Medieval Costume and Fashion*. New York: DOVER PUB., p.69.
- 6) 토머스 매든, 권영주 역(2005). *십자군*. 서울: 루비박스, p.98.
- 7) Blanche Payne(1965).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ub., p.187.
- 8)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1992). *THE HISTORY OF UNDERCLOTHES*. New York: DOVER PUB., p.25.
- 9) Thirteenth century. retrieved October 26. 2006. from <http://www.thirteenthcentury.com>
- 10) Chausses And Braies Garments for the Medieval Leg. retrieved October 27. 2006. from <http://www.randyasplund.com/browse/medieval/chausse1.html>
- 11) 遠藤教二(昭和 45). *服裝とその美學*. 東京: 造形社, p.163.
- 12) MAX VON BOEHN, 이재원 역(2000). Op. cit., p.125.
- 13) Francois Boucher(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p.80.
- 14) medieval tymes. retrieved January 16. 2007. from <http://www.medievaltymes.com/courtyard/>
- 15) Academy of European Medieval Martial Arts. retrieved January 8. 2007. from http://www.aemma.org/armour_768.html
- 16) Manfred Reitz, 이현정 역(2006). *중세산책*. 서울: 플래닛미디어, p.107.
- 17) Phyllis G. Tortora, Keith Eubank(1994). *HISTORIC COSTUME*. New York: Fairchild Pub., p.125.
- 18) Andrea Bachini, 남경태 역(2005). *중세의 역사*. 서울: 사계절, p.55.
- 19) ミシェルポーリエウ(1985). *服飾の歴史 - 古代・中世篇*. 東京: 白水社, p.148.
- 20) Manfred Reitz, 이현정 역(2006). Op. cit., p.113.
- 21) 하마모토 다카시, 박재현 역(2004). *문장으로 보는 유럽사*. 서울: 달과소, p.53.
- 22) 호르스트 푸어만, 안인희 역(2004). *중세로의 초대*. 서울: 이마고, p.93.
- 23) Footwear of the Middle age. retrieved October 31. 2006. from <http://www.personal.utulsa.edu/~marc-carlson/shoe/SHOEHOM1.HTM>
- 24) CREW & NEERGAARD(2001). *SHOES AND PATTERNS*. SUFFOLK: BOYDELL, p.4.